

‘쌀 수탈’ 군산 폐철도, 관광 트램으로 부활한다

시, 철도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
1단계 동백대교~버스터미널 2.5km
2023년 착공해 2024년 시험운행



무가선 저상트램 표준규격 차량 조감도..

일제강점기 쌀 수탈에 쓰인 군산의 폐철도가 관광용 트램(노면전차)으로 거듭난다. 21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중앙동-해신동 폐철도 자원을 활용한 '무가선 관광 트램' 운영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가 나왔다. 트램은 노면 위에 부설된 궤도를 따라 주행하는 전차다. 이를 고압전선 없이 배터리를 이용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무가선트램국책사업단과 협업체 '군산시 뉴트로 관광트램 운영'에 필요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용역은 동백대교에서 군산역에 이르는 6.5km의 폐철도 구간에 대한 관광형 트램 운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브랜드이미지, 차량, 검수고에 대한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를 과업으로 이뤄졌다. 군산시는 먼저 1단계로 동백대교~내항~재보선창~공설시장~시외버스터미널에 이르는 2.5km 구간을 2024년까지 만들고, 이후 나머지 구간

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단계 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내년에 허가 절차를 밟은 뒤 2023년 착공할 계획이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2024년 준공과 함께 시험 운행이 이뤄지게 된다. 군산시는 고압전선 없이 배터리를 사용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은 친환경 '무가선 트램'을 적용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4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군산시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트램 노선과 운영 방법, 민간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군산시는 지난 19일 상황실에서 '무가선 관광트램 운영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산시 제공>

강임준 시장은 "과거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흔적으로 인식되면서 군산의 아픈 근대 역사를 대표했던 폐철도를 미래와 희망을 나르는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려 한다"며 "트램을 토대로 군산의 산재한 문화·관광·예술 거점을 연결하면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특히 "철도 복원-열차 운행이라는 단순한 접근에서 더 나아가 미래에 적합한 친환경 모빌리티로서의 무가선 관광트램"이라고 강조했다. /군산=박금식 기자 nogusu@kwangju.co.kr

정읍시, 입식 전환 음식점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정읍시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음식점에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좌식 음식점 가운데 40석 이상 입식 식당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음식점이다. 80석 이상 음식점에는 최대 6000만원, 40~79석 음식점에는 최대 4000만원이 지원된다. 총사업비의 40%는 자부담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입식 테이블 교체와 홀·화장실 리모델링, 외국어 메뉴판, 주방 집기류 교체 등이다. 정읍시는 현장 심사를 거쳐 대상 음식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익산시, 시민·단체에

나무 3만4000그루 무료 배부



익산시는 시민과 단체에 나무 3만4000여 그루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시민 1명에게는 3그루씩 총 7000여 그루를, 146개의 공동주택과 읍·면·동 유관 단체 등에는 2만7000여 그루를 각각 배부한다. 무료로 나눠주는 나무는 사과나무, 자두나무 등의 유실수와 자산홍, 회양목, 산수국 등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500만그루 나무 심기 운동"이라며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무장읍성



봉덕리 고분군 출토 금동신발



봉덕리 고분

세계유산 5관왕 고창군 '역사문화관광도시' 변신 박차

상금리 고인돌군 유산 등재 추진
무장읍성 을 연말 복원사업 완료
역사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총력

고창군이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세계적 역사문화관광도시'에 도전한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문화유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 역사문화관광 도시로의 변신을 꾀한다. 이미 산과 구름지 등 수직적 경관을 볼 수 있는 고창갯벌은 오는 7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되면 고창은 유

네스코 문화유산, 자연유산, 인류무형유산(농악, 판소리) 등 4개를 보유하게 된다. 여기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까지 더해져 유네스코 세계유산 5관왕에 오르게 된다. 고창군은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수준의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변모를 준비하고 있다. 고창군은 관광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봉덕리고분(사적 제531호)을 중심으로 하는 '마한 역사문화유적'과 '상금리 고인돌군'의 세계유산 등재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향토문화유산은 도지정 문화재로, 도지정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승격 작업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미 선운사 참담암 석조지장보살좌상(보물 제

2031호)과 선운사 만세루(보물 제2065호)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됐다. 또 부곡리 고인돌(유형 제265호)과 참담암 석조지장보살삼존상 권속 및 복장유물(유형 제265호) 등 2점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됐다. 지난 2월에는 봉덕리고분에서 발굴된 금동신발이 국가지정 보물로, 석탄정 등 4건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고창군은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화에도 힘쓰고 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무장읍성 복원사업은 집중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올 연말 성곽 전 구간 복원사업이 완료된다. 최근 새로 마련된 무장읍성 종합정비계획은 11점이 발굴된 비격진전뢰의 활용을 핵심과제로 무

장읍성 관광자원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 고려초기 청자 유적지인 용계리청자요지(사적 제345호)를 인근의 온곡암사르습지, 고인돌군과 연계해 문화유산을 한 곳에서 보고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유적 체험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 주관 각종 공모를 통해 확보한 8억여원은 군민이 지역문화에 자긍심을 갖고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에 활용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문화유산 발굴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역사문화도시 고창을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군 북부 지역청년에

익산시, 상해보험 혜택

익산시는 군 북부 중인 지역 청년에게 상해보험 혜택을 준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북부를 하는 현역병, 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다.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보장 항목은 복부 기간에 입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골절 및 화상,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이다. 보장 금액은 최대 5000만원이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과 동시에 해지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